

Suez, Ondo Nalco 수처리제 매각!

Blackstone · Apollo · Goldman 인수 ... Suez는 Com · 환경사업으로 전환

미국 뉴욕소재 민간 투자기업 Apollo Management, The Blackstone Group 및 Goldman Sachs Capital Partners는 임대차(Lease)를 포함해 약 43억5000만달러에 Suez의 Ondo Nalco 수처리제 사업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Suez는 2003년 상반기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Ondo Nalco 사업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사업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do Nalco는 2003년 말까지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나 정부의 승인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UBS 및 Rohatyn Associates가 매각자문을 맡고 있다.

The Blackstone Group에 따르면, 각각의 투자기업은 동등한 지분을 소유하게 되며 매각액의 약 32억달러를 선순위채(Senior Debt) 및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이나 성장 플랜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Blackstone이 최고 입찰가를 제시했으며 Goldman Sachs는 합작투자 형태로 입찰에 참여해 이후 Apollo와 공동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또 화학기업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투자기업 Kohlber Kravis Roberts 및 Clayton Dubilier & Rice도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uez에 따르면, 인수기업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Ondo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 Amortization)의 8.1배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특수화학 사업 인수시 민간 투자기업들이 EBITDA의 약 7배 이하를 지불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비교적 큰 액수로 평가되고 있다.

Ondo Nalco는 매출 26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수처리제 및 서비스 기업으로 Suez는 몇개월 전부터 Indeo 사업 매각을 추진해 왔다. Suez는 1999년 수처리제 기업인 Calgon 및 Nalco Chemical을 인수한 후 Aquazur 수처리제 사업부와 합병해 2000년 Ondo Nalco를 설립했다.

Suez는 Ondo Nalco를 매각함으로써 화학사업을 정리하고 앞으로 에너지 및 환경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Ondo Nalco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부채가 약 165유로로 35억유로(38억달러) 정도 줄어들게 된다.

Suez는 매각 수수료(One-Time Charge)로 7억유로를 부담하게 되며 커뮤니케이션 사업 투자금 7억유로를 예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Suez는 수수료 부담 및 투자비용을 순손실의 주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Suez는 2002년 상반기 매출이 207억유로로 4.3% 증가함으로써 순이익 1억6400만유로를 달성했으나 2003년 상반기에는 순손실 16억유로를 기록했다. 2002년 Ondo Nalco 사업의 매출은 Suez의 전체 매출액 400억유로의 5.9%에 달했다.

Suez는 지난해 Ondo Nalco의 Texo Food Group과 Thiabedazole 및 Dibromodicyanobutane 사업을 처분하고 영국 Durham 소재 Northumbrian Water의 지분 75%를 매각했다.

한편, Ondo Nalco는 60억달러 세계 수처리제 및 서비스 시장에서 매출액 15억달러 규모의 GE Water Technology와 경쟁하고 있으며, 수처리제 시장 성장률은 몇년 전부터 GDP 성장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21>